



출판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유독 세계문학전집 시장의 열기는 뜨겁다. 민음사는 최근 새로운 세계문학 시리즈 '모던 클래식'을 내놓았으며 문학동네도 이달 중순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을 선보일 예정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세계문학전집 '춘추전국시대'

최근 불황속에서도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세계문학전집 시장의 열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출판사들은 수능을 끝낸 고3 수험생들과 초·중·고등학교 겨울방학 시즌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세계문학전집을 출간하고 있다.

세계문학전집 시장의 선두주자임을 자부하고 있는 민음사는 최근 새로운 세계문학 시리즈 '모던 클래식'을 내놓았으며 문학동네도 이달 중순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을 선보이며 시장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가로스키의 확산과 IMF 등 경제 위기로 10년 이상 소멸됐던 세계문학전집 시장을 되살린 것은 민음사. 1999년 8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로 시작한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은 최근 210권을 돌파했다. 지금까지 680만 부 가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내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또 새로운 세계문학 시리즈인 '모던 클래식'을 내며 세계문학전집 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 민음사·을유문화사·웅진·문학동네 수능 끝·방학 시즌 겨냥 경쟁적 출간 시장 확대나 혼란이나 '품질'에 달려

우선 1차로 오른 과목의 '내 이름은 빨강', 코맥 매카시의 '핏빛 자오선' 등 10권을 선보였다. 지난해 세계문학전집 시장에 뛰어든 을유문화사와 웅진단행본그룹의 시도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23권이 출간된 을유문화사의 '을유세계문학전집'은 번역의 수준 면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토마스 만의 '마의 산' 상·하권을 시작으로 매월 2~3권씩 출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300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리어왕·맥베스', 대니얼 포어의 '로빈슨 크루소', 워싱턴 스튜어트 등의 번역했다.

전집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기울었던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는 의지다. '정본(正本)'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기존에 번역됐던 르클레리오의 '홍수',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등도 번역한다는 계획이다.

출판가에서는 문학동네의 세계문학전집 시장 진출과 관련, 그 파급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은수 민음사 대표는 "민음사의 경우 100권을 낸 2004년까지도 적잖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세계문학전집을 안정적으로 발간하려면 번역품질의 향상, 새로운 분야의 개척 등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학동네 엄현숙 편집국장은 "시장 전망은 아직 막막하다. 우리는 후발 주자이므로 단어 하나, 구절 하나도 정지하게 번역하고 초역 비율을 50% 이상 높이는 것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알림

## 광주일보 신춘문에 공모

단편소설·시·동화...12월15일 마감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 (당선작 1편, 고료 300만원)
- 시 : 3~5편 (당선작 1편, 고료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당선작 1편, 고료 100만원)

광주일보보사가 한국 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에'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에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었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접수마감 : 2009년 12월15일(15일자 소인 유효)
- 보내실곳 :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전화:062-220-0680)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주소·e메일 주소·인물사진을 함께 보내주시십시오.
- 응모작품은 발표된 적인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 일 경우 당선시 취소됩니다.
- 당선작은 2010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

# 5·18 ... 빛으로 태어난 광주

김미숙하나무용단 창작무용 '꽃·비' 내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 지역사업 공모 당선작...40여명 출연

'5·18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빛'으로 태어나는 광주.'

시대의 햇빛이었던 광주민중항쟁의 아픔을 넘어 또 다른 도약을 꿈꾸는 광주의 이야기가 한국무용으로 태어난다.

김미숙하나무용단이 창작 무용 '꽃·비'를 무대에 올린다. 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번 작품은 광주 대표문화상품을 만들기 위해 광주 문화예술진흥회가 진행한 '지역협력형 사업' 공모 당선작이다. 공연 단체 지원액중 가장 큰 규모인 1억원이 지원됐으며 자체 예산 6천만원 등 총 1억 6천만원이 투입됐다.

작품은 '꽃비는 아프다', '비 개인 이후', '칠죽같은 어

름', '다시 동이 트다' 등 모두 4막으로 구성됐다. 프롤로그에서는 불의에 항거하고, 절규하는 광주의 모습을 그린 강렬한 군무가 중심에 놓인다. 목숨까지 내놓으며 '정의'를 위해 돌진하는 이들의 모습을 역동적인 춤사위로 풀어냈다.

이후 등장하는 남녀 주인공을 통해 광주 이야기가 이어진다. 슬픔, 빈곤, 질시를 지나 화합과 희망의 '빛의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한국적 춤사위로 풀어냈다. 언뜻, 후두두 떨어지는 꽃잎은 서러워 보이지만 작품 속에 내리는 '꽃·비'는 희망과 환희의 상징이다.

대작당개 이번 작품은 무대 세트와 장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광주의 상징인 '빛'을 표현하기 위해 낚시찌를 활용한 무대. 1천만원의 투입한 소나기 내리는 장면 등 광주에서는 보기 힘든 장치들이다.

김미숙하나무용단은 전국무용제에서 '하얀눈물'로 금상, '희소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 받았다. 전국무용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한 이세라씨와 배강원씨가 남녀주인공을 맡았으며 박윤정씨 등 40여명이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박수영 피아노 콘서트

11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박수영(사진) 피아노콘서트가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물의 요정', '교수대', '장난꾸러기 도깨비' 등 알로와주 베르트랑의 시집에서 영감을 얻은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민속적인 소재를 모티브로 피아노로 표현할 수 있는 타악기의 특징을 최대한 부각시킨 바르톡의 '소나타'다. 또 스크리아빈의 '악마적 시', 프코코피에프의 대표작인 '소나타 7번'을 들려준다.



전남대와 이화여대 대학원을 거쳐 파리 콘서트바티르 인터내셔널 등에서 수학한 박씨는 성페테스브르 챔버 오케스트라, 불가리아 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무대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호신대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며 광주피아노 아카데미, C.N 피아노 회원으로도 활동중이다.

문의 011-9617-576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한국 짚·풀 공예대전'

9~13일 남봉미술관

짚과 풀을 이용한 공예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한국 짚·풀 공예대전'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남봉미술관(전일빌딩 3층)에서 열린다.

남도짚·풀문화보존회(회장 이현채)와 광주동구 문화원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전에는 짚·풀 공예작가 23명의 우수작품 90여 점이 전시된다.

9일 개막식과 함께 짚풀공예작가 신평호, 정한중씨 등의 시연이 펼쳐지며 전시 기간 새끼꼬기, 짚신 만들기 등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시상식은 13일 오후 3시, 문의 062-225-581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진양행에게 판매처장상 수상 영감 영감자신분 최대 10% 할인 혜택

# 초절전 귀뚜라미 거꾸로 냉난방기

100% 에너지효율

8월 10일 출시

080-080-8802

UPGRADE

최고의 업그레이드

이름